

prostrate dawn,
Undulating into the willing and yielding day,
Lost in the cleave of the clasp and sweet-flesh'd day.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의미없는 욕망의 유희가 아니라 어김없이 찾아 오는 무궁한 미래에 대한 신의 약속이다. 끝음성으로 여성은 남성과 하나가 되고 그로 인한 탄생이 곧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가름에서 시인은 반어적(反語的)으로 묻는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후 그가 낳은 자식의 자식에게서 누가 태어날지를 너는 알고 있는가?” 시인 Whitman에게 영혼이란 육체에 지나지 않거나, 아니면 육체의 어떤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육체가 지닌 성충동이 바로 존재의 근본이다.

Whitman이 쓴 시의 가치를 처음으로 알아보고 찬사를 보냈던 Emerson마저도 그에게 시의 성색(性色)을 부드럽게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Whitman은 “성을 제거하면 나의 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대답하며 그의 깨달음을 굽히지 않았다. Darrow가 말했듯이, Whitman에게는 육체를 통해 얻은 “성스러운 촉감과 그것이 지닌 만물을 영속하게 하는 힘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에야 비로소 참도덕과 참제도가 존재한다.”²²⁾ Whitman의 시에서 우주는 성으로 존재한다. 그의 시에서 성은 만물의 존재의미이자 존재이유이며, 모든 가치의 근본이자 우주적 힘의 원천이다. “Song of Myself”의 셋째 가름에서 Whitman은 시공을 초월하여 항존하며 생성사멸의 무한한 변화와 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우주적 차원의 자가당착적 성충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There was never any more inception than there is now,
Nor any more youth or age than there is now,
And will never be any more perfection than there is now,
Nor any more heaven or hell than there is now.

Urge and urge and urge,
Always the procreant urge of the world.

Out of the dimness opposite equals advance, always substance
and increase, always sex,
Always a knit of identity, always distinction, always a breed of life. ...
I and this mystery here we stand.

“한 여인이 나를 기다리네”(“A Woman Waits for Me”)에서 Whitman은 모든 존재는 성(sex)의 외연(外延)이라고 선언한다.

22) Darrow, p. 372.

Sex contains all, bodies, souls,
 Meanings, proofs, purities, delicacies, results, promulgations,
 Songs, commands, health, pride, the maternal mystery, the
 seminal milk,
 All hopes, benefactions, bestowals, all the passions, loves, beauties,
 delights of the earth.

“Starting from Paumanok”의 열 두 번째 가름에서 Whitman은 자신있게 말한다. 성(sex)은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며, 죽음으로도 없앨 수 없는 것으로 우주에 깃든 거룩한 신의 섭리”이다. 그리고, “Song of Myself”의 다섯번째 가름에서 시인은 태초에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다고 결론짓는다.

Swiftly arose and spread around me the peace and knowledge
 that pass all the argument of the earth,
 And I know that the hand of God is the promise of my own,
 And I know that the spirit of God is the brother of my own,
 And that all the men ever born are also my brothers, and the
 women my sisters and lovers,
 And that a kelson of the creation is love,
 And limitless are leaves stiff or drooping in the fields,
 And brown ants in the little wells beneath them,
 And mossy scabs of the worm fence, heap'd stones, elder,
 mullein and poke-weed.

Whitman의 시에서 우주는 그리움과 끌림의 원형적 충동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적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 모양지워지고 색칠된 “성”(sex)이 아니라 우주적 차원의 순수하고 유기적인 성이다. 그것은 동양에서의 “음과 양”이나 Nietzsche의 “디오니수스적인 충동”과 “아폴론적인 충동”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상극의 두 요소 사이에 존재하는 불가항력적인 끌림으로서 우주적 생성과 변화의 동인이 되는 원형적 충동이다. 미국독립 100주년 기념으로 출판된 1876년 판 *Leaves of Grass*의 서문에 붙인 주석에서 Whitman은 우주의 운행원리로서의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o this terrible, irrepressible yearning, (surely more or less down underneath in most human souls,)—this never—satisfied appetite for sympathy, and this boundless offering of sympathy—this universal democratic comradeship—this old, eternal, yet ever—new interchange of adhesiveness, so fitly emblematic of America—I have given in that book, undisguisedly, declaredly, the openest expression....²³⁾

위의 인용은 남성간의 친화력에 대한 Whitman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지만, 위의 주장을 *Leaves of Grass*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확대 해석하면 성에 대한 그의 견해는 분명해진다. Whitman에게 우주는 자기모순적이고, 서로 상충되며, 서로 상극인 무수한 원소들로 구성된 광대무변한 물질계이고, “통틀어”라는 뜻의 프랑스어 “*en masse*”는 그 상징이며, “성”(sex)은 그 운행원리이다. “성”의 붙임충동(adhesiveness)으로 상극은 하나가 되어 생성과 변화를 낳고, 성의 “끌림충동”(amativeness)으로 상충은 조화를 이루어 화합을 낳는다.²⁴⁾ 그러므로 Whitman에게 사랑은, 붙임충동(adhesiveness)이든 끌림충동이든(amativeness), 세계를 결집시키고 존속시키는 힘으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깃든 가이없는 생명의 기운”이다. 그것은 원소들을 뭉쳐 하나되게 하는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끌림”의 충동으로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우주적 차원의] 교감의 욕구”이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작용하는, “우주에 편재하는” 힘으로 “오래고 영원한,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새로운 교류”를 만들어냄으로써 우주를 생성 변화하게 하는 우주 운행의 원초적 힘이다.

Whitman의 시에서 끌림과 붙임의 원형적 충동은 만물에 편재하면서 우주의 모든 원소 하나하나에 날몸으로서의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날몸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는 어떤 성정(性情)이다. 그리고, 각각의 날몸들이 성장할 때 이 성정이 영혼에 차올라 각각의 날몸들은 대성체(帶性體)가 된다. 마치 대전체들이 서로를 끌고 밀치듯, 이 성정으로 맞극의 대성체(帶性體)가 된 만물들은 서로 만나 부딪혀 부서지거나 하나를 이루며, 헤어짐에 임해 서로를 생각하고, 교감을 바탕으로 관계를 이룬다. “*Song of the Open Road*”에서 Whitman은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성기(性氣)가 차올라 각각의 날몸에 그만의 속성을 부여하고, 그것으로 세계를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The efflux of the soul is happiness, here is happiness,
I think it pervades the open air, waiting at all times,
Now it flows unto us, we are rightly charged.
Here rises the fluid and attaching character,
The fluid and attaching character is the freshness and sweetness
of man and woman,

23) Sculley Bradley, et al. ed., *Leaves of Grass: A Norton Critical Edition* (New York: W.W. Norton & Co., 1973), p. 753.

24) Amativeness에 관한 언급은 1855년 판 서문과 시 “By Blue Ontario’s Shore” 등에 나온다. 그 가운데에서도 산문 “A Backward Glance O’er Travel’d Roads”에서의 다음 언급은 주목할만하다. “From another point of view ‘Leaves of Grass’ is avowedly the song of Sex and Amativeness, and even Animality—though meanings that do not usually go along with those words are behind all, and will duly emerge; and all are sought to be lifted into a different light and atmosphere.”

(The herbs of the morning sprout no fresher and sweeter every
 day out of the roots of themselves, than it sprouts fresh and
 sweet continually out of itself.)
 Toward the fluid and attaching character exudes the sweat of the
 love of young and old,
 From it falls distill'd the charm that mocks beauty and attainments,
 Toward it heaves the shuddering longing ache of contact. ...

The earth never tires,
 The earth is rude, silent, incomprehensible at first,
 Nature is rude and incomprehensible at first,
 Be not discouraged, keep on, there are divine things well envelop'd,
 I swear to you there are divine things more beautiful than words can tell.

Whitman의 시에서 성과 사랑은, 그러나, 성적 하나됨과 동료애적 교감의 희열뿐 아니라 해체와 이별의 아픔까지를 포괄하는 순환적 원리이다. Whitman에게 사랑은 독립적 자아의 축성이면서 동시에 해체이다. 우주 속의 원소들은 성의 원리에 따라 성정을 띠고 다른 요소들과 결합하지만, 성의 원리에 따라 성정을 잃고 그들이 만났던 원소들을 떠나 새로운 성정을 띠고 다른 원소들과 재결합한다. 그리고, 수없는 만남과 해체, 떠남과 재결합으로 우주는 끝없이 변화하면서 영속한다. 우주적 사랑의 법칙에서는 죽음조차도 완전한 끝남,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결합, 새로운 조화, 새로운 생성이다. 그것은 지각되지 않는 형상의 변화, 또는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모습의 존재로의 이행(移行)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 돌립의 사랑은 그 자체로는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지만, 우주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나 위대한 성취이며 영광이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수불가결한, 그리고 지극히 보편적인 우주 운행의 과정으로, 존재는 곧 이 성취와 영광의 거대한 염주이다.

Whitman의 “신”(神)은 높고 먼 푸른 하늘 뒤에 숨어 있는 부재신(absentee God)이거나 유령의 소리를 내는 죽은 신이 아니라 시인 Walt의 육감적 상상력으로 새로이 태어난 “성신”(性神, God of Sexuality)이다. Walt의 성신은 끌림과 그리움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생명과 조화를 낳으며, 그리하여 세계를 존속시키는 유기적 통합력을 지닌 자연신이다. 현상계에서의 악과 고통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는 정당하며 신은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우호적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Whitman은 신플라톤주의 자들이나 기독교 철학자들, 또는 동시대의 낭만주의자들과 다르지 않다. 또한 신에 이르는 인간의 직관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가지며, 자신의 무한한 능력을 깨달아 안다면 누구나 만물에 편재하는 자연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Whitman의 사상은 Emerson적이다. 그러나, Whitman은 동서고금의 다른 초월주의자들과는 달리 원형적 선의 세계에서 방사되는 선의 원리가 인간의 이성적 직관으로 흘러든다고는

믿지 않는다. “Crossing Brooklyn Ferry”의 두 번째 가름과 여섯번째 가름에서 Whitman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한다. 우주의 “간절하고 조밀한, 그리고 빈틈없는” 법칙은 “시각과 청각으로 체득될 수 있는 사물들의 염주”(“beads on my smallest sights and hearings”)로 꿰어져 있다. “내가 나인 것은 육체를 통해서이고, / 내가 나였던 것도, 내가 나가 되는 것도 육체를 통해서이다.”

I too had receiv'd identity by my body,
That I was I knew was of my body, and what I should be I knew
I should be of my body.

Emerson과는 달리 Whitman은 생각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그리려 들지 않는다. 그는 차라리 경이로운 육체의 촉감으로 도달하는 초월을 믿는다. Whitman에게 육체는 세상의 신비에 도달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다면, Whitman의 육감으로 얻은 성신의 비전은 그 효용이 무엇일까?

IV. 디오니수스의 찬가

*The Tenth Muse*에서 Albert Gelpi는 “Emerson의 이상적 시인은 디오니수스적인 신”이며 “Poe의 이상적 시인은 아폴론적인 신”이라고 주장한다.²⁵⁾ Poe가 존재의 어두운 심연을 그리고 Emerson이 존재의 절제된 빛의 세계를 그린다는 점에서 볼 때, Gelpi의 단언은 어떤 점에서 분명히 지나친 단순화이다. 그들의 시가 지닌 외양만을 보면 Poe의 시가 슬취한 사람의 광포한 감정토로에 가깝고 그러므로 Poe의 시인이 보다 디오니수스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적 측면에서 보면, Emerson과 그의 시학을 따른 Whitman의 시가 보다 디오니수스적이라는 Gelpi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그들의 시는 무의식 속에 억눌려 살고 있는 “분열된 자아”를 찾아 그 혼을 되살려 내려는 노력이며, 여러 성정이 융화되어 균형을 이룬 개인적, 국민적 “참자아”(The Jungian integrated self)의 탐색 여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시에서는 시와 시인에 대한 시학에서의 전통적 관심은 개인과 사회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바뀐다. 그들의 시론과 시에서 불건강한 개인과 사회의 병리(病理)가 들추어지고 개인과 사회의 불건강의 치유를 위해 미국사 200년에 축적된 집단무의식이 탐색된다. Gelpi에 의하면, Emerson과 Whitman, 그리고 그들의 시학을 따른 다른 Emerson적 시인들—Emily Dickinson, Hart Crane, Allen Ginsberg, the Black Mountain poets, 등—의 시는, 적어도 심리적 측면에서는, 억눌림으로 팽팽해진 영혼

25) Albert Gelpi, *The Tenth Muse: The Psyche of the American Poet* (New York: Cambridge Univ. P., 1991), 150

의 방출이며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되찾으려는 강한 바람의 표현이다.

억눌린 영혼의 해방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건강회복이라는 디오니수스적 이상이 Emerson 시학의 한 바탕을 이루고 있고 Whitman의 시가 Emerson의 전통에 속해 있다는 Gelpi의 주장에는 번득이는 통찰이 보인다. Emerson과 Whitman의 눈에 19세기의 미국은 구석구석 병들어 썩고 있었다. 1933년에 쓴 에세이 “Walt Whitman”에서 Sherwood Anderson은 19세기에 이르러 미국인들의 정신이 얼마나 조락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추려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금 미국의 참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 잊고 있다. ... 미국이 얼마나 거대한지, 얼마나 다양한지,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는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갭 속으로 모여 들어 너무나 오랫동안 그 안에 살아왔다. ... 그들은 땅과 강과 하늘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 버린 것이다.”²⁶⁾ Galway Kinnell이 명명한 것처럼 Whitman의 시대는 “진보의 꿈에 취한 불품없는 시대”²⁷⁾였다. 이 때에 와서 미국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지탱해 오던 청교도정신은 무너졌고, 나라는 두 동강이 날 위기에 처했으며, 역사의 고리는 끊어졌다. Emerson의 에세이는 그리고 Whitman의 시는 “불품없는” 시대에 무너져가던 미국정신을 붙잡고 살아 온 미국인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삶의 기록이다. 그것은, Gelpi가 간파한 대로, 독기로 세상을 가득 채운 악령을 쫓고 우주혼과의 교접을 통해 건강한 영혼을 되찾으려는 되돌림의 주술이다.

Emerson의 디오니수스적 이상은 “Nature,” “The American Scholar,” “The Poet”과 같은 에세이와 “The Uriel”같은 시에 잘 나타나 있다. Emerson의 에세이와 시에서 “시인”은 무엇보다 우주를 지배하는 절대적 초령(Oversoul)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는 선각자(seer)이고, 자신의 깨달음을 세상에 전하는 “전령”(sayer)이며, 억눌린 자아의 영혼을 방출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의 회복을 꾀하고 그리하여 병든 영혼을 불건강의 늪에서 구하는 “해방자”(liberator)이다. 에세이 “Nature”와 “The American Scholar”에서 Emerson은 그의 동시대인들을 기계적 인식행위로 몸집이 줄어든 “난장이”로, “영락한 신”으로, 통시력을 잃어버린 “근시”로 힐난하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여 자연을 꿰뚫어 보고 자연이 상징하는 “초월적 현실”을 능동적이고 직접적으로 인식하라고 촉구한다. “The American Scholar”에서 그는 진정한 “학자”는 회복된 통찰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영혼을 연마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대륙 미국을 발견하는 “살아 움직이는 영혼의 소유자”(the active soul)가 되라고 역설한다. “The Poet”에서는 초령에 의해 운행되는 우주의 아름다움을 꿰뚫어 보

26) Shwewood Anderson, “Walt Whitman,” in *Leaves of Grass by Walt Whitman*, edited by Charles Cullen, Thomas Y. Crowell Co., 1933, pp. Vii. Recit. from *Poetry Criticism* Vol. 3, p. 383.

27) Galway Kinnell, “Whitman’s Indicative Words,” in *The American Poetry Review*, Vol. 2, No. 2 (March-April, 1973), p. 9.

고 이름짓고 말해 범인(凡人)들의 영혼을 구하는 해방자 시인의 출현을 기대한다. 그리고 “The Uriel”에서 Emerson의 시인 Uriel은 우주 운행의 초월적 질서는 처음과 끝이 있는 “선의 질서”가 아니라 시작과 끝이 하나인 “원의 질서”임을, “선”의 근원은 “악”임을 선지하여 “진실을 가리는 천사들의 날개를 부끄럽게 한다.”

Line in nature is not found;
Unit and universe are round;
In vain produced, all rays return;
Evil will bless, and ice will burn.'

관념 속에 존재하는 Emerson의 시인은 현실 너머 존재의 찬란한 꿈을 통찰하는 현자(賢者)이자 건강하고 강인한 국민적 자아의 창조자로서 끊임없이 일그러진 영혼을 통합하고 융합하는 “살아 움직이는 영혼의 소유자”(the active soul)이다.

절대초령의 직관적 경험으로 불건강한 자아가 건강하고 융합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Emerson의 생각은 그의 가르침을 따른 Whitman의 시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실험된다. 그의 시집 *Leaves of Grass*에서 Whitman은 Emerson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눈으로 미국의 아름다움을 꿰뚫어 보고, 역사의 불건강한 늪에서 허덕이는 짓눌린 영혼을 찾아 해방시키는 디오니수스의 찬가를 부른다. Emerson에게 그랬던 것처럼 Whitman에게도 자연은 읽고 공부하고 신의 전갈을 찾아낼 교과서이며, 시는 역사의 늪을 지나 보이지 않는 초월의 세계에 들어가는 문에 달린 정침이다. “The Poet”에서 Emerson은 말한다. “아직 Oregon과 Texas를 노래 부른 이는 없다. 우리들의 눈에는 미국은 그대로 한 편의 시이다. 이 땅의 광대한 산하는 상상력을 질러 반짝이게 하여 오래지 않아 격에 맞는 운율을 찾을 것이다.”²⁸⁾ 1855년 판 *Leaves of Grass*의 서문에서 Whitman은 Emerson의 기대에 화답한다. “미합중국은 본래부터 가장 위대한 시입니다.”²⁹⁾ 여기에서 Whitman은 유기적 통합의 신성을 담은 자연의 “위대한 시”를 “불품없는” 미국의 역사에 활력을 주는 인간의 시로 바꾸어 씌으로써 “영락한 신”이자 “근시”가 되어버린 미국적 자아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

Leaves of Grass 전반에 걸쳐 Whitman은 무의식의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불유쾌한 미국적 경험들을 살살이 뒤진다. 그리고 모든 불건강한 영혼들을 유기적 통합의 자연세계로 불러내어 정화의 의식을 치르게 한다. 1855년 판 *Leaves of Grass*에 이미 들어 있는 “the Sleepers”는 불유쾌한 경험이 정화되는 의식의 과정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이다. 꿈 속에서 과거를 헤매는 이 시의 화자는 유쾌했던, 혹은 불유쾌했던

28) Emerson, “The Poet,” in *The Harper American Anthology*, The Compact Edition, ed. Donald McQuade et. al. (Boston: Harper, 1996), p. 642.

29) Whitman, Untitled Preface to the 1855 Edition of *Leaves of Grass*, in *Harper Anthology*, p. 1258.

온갖 종류의 삶의 경험을 뒤지며 자신의 무의식 속에서 사회적 “통제”의 기운이 닿지 않은 원형적 본능의 세계를 만난다. 그리고 시인 Walt는 어렵פות한 깨달음에 이른다. 선악(善惡)과 정오(正誤)의 판단이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권력이 번덕을 부리지 못하는 원형적 무의식의 세계는 스스로를 정화하고 되돌림으로써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온전함을 지킨다. 시의 배경이 되어 있는 “밤”과 “꿈”은 찢어진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병든 영혼의 고향이다. 병든 영혼은 이 공간으로 다시 돌아가 의식의 세계에서 얻은 마음의 병과 상처—광기와 질병, 외로움과 소외, 등—를 보정(補正)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맞을 수 있는 건강한 정신으로 재생한다. 생성의 근원이 되는 자연의 자궁으로, 불가사의한 생성의 화학적 반응법칙에 따라 운행되는 밤의 세계, 어머니의 세계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I wander all night in my vision,
Stepping with light feet, swiftly and noiselessly stepping and stopping, ...

The female that loves unrequited sleeps,
And the male that loves unrequited sleeps, ...
And the enraged and treacherous dispositions, all, all sleep. ...

Now I pierce the darkness, new beings appear,
The earth recedes from me into the night,
I saw that it was beautiful, and I see that what is not the earth is beautiful. ...

The fugitive returns unharm'd, ...
The consumptive, the erysipalite, the idiot, he that is wrong'd, ...
I swear they are averaged now—one is no better than the other,
The night and sleep have liken'd them and restored them. ...
Perfect and clean the genitals previously jetting, and perfect and
 clean the womb cohering,

The soul is always beautiful,
The universe is duly in order, every thing is in its place, ...
The diverse shall be no less diverse, but they shall flow and unite ...

The sleepers are very beautiful as they lie unclothed, ...
The felon steps forth from the prison, the insane becomes sane,
 the suffering of sick persons is reliev'd, ...
They pass the invigoration of the night and the chemistry of the
 night, and awake. ...

I will stop only a time with the night, and rise betimes,
I will duly pass the day O my mother, and duly return to you.

“Song of Myself”의 열 한 번째 가름에서는 낮의 세계에서 얻은 병과 상처가 치유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이 제시된다. 이 시에서 문명에 윤패된 여인의 모습은 Emerson이 “Nature”에서 말했던 “몰락한 신”이며 “난장이”이자 “근시”로서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녀의 마음은 자연의 부름에 따르는 남성들을 향하고 있지만, 그녀의 몸은 문명과 거짓 이데올로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다. 시속의 여인이 자연상태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모두 “스물 여덟해”의 문명의 껍데기를 벗고 “스물 여덟의 젊은 남성” 중 “가장 소박한” 남성과 거리낌없는 성적 교감을 가져야 한다.

Twenty-eight young men bathe by the shore,
Twenty-eight young men and all so friendly;
Twenty-eight years of womanly life and all so lonesome.

She owns the fine house by the rise of the bank,
She hides handsome and richly drest aft the blinds of the window.
Which of the young men does she like the best?
Ah the homeliest of them is beautiful to her.

Where are you off to, lady? for I see you,
You splash in the water there, yet stay stock still in your room.

Dancing and laughing along the beach came the twenty-ninth bather,
The rest did not see her, but she saw them and loved them.

Whitman이 찬미하는 신은 되돌림의 신이다. 그는 한낮의 띄약별에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한밤의 화학반응으로 치유하는 자기치유의 신이다. 그러나, Whitman의 Walt가 추구하는 되돌림이란 무엇인가? “Song of Myself”의 첫번째 가름에서 Walt는 선언한다. “나, 서른 일곱, 완전한 건강으로 [새로이] 시작한다, / 죽을 때까지 잃지 않기를 기원하며.” 초월주의 시인 Walt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자 했던 “완전한 건강”이란 무엇일까? 시인 Walt에게 하나의 커다란 우주적 패러독스는 사랑의 신의 어떤 궁극에서 상극과 상충이 생겨나 그들이 상호 교류하며 생명과 조화를 낳고 우주를 영속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상극과 상충의 상승결합을 위해 날뫼는 자신을 십분 발휘하여 스스로를 초월하고, 그 상승결합으로 존재가 형성되고, 해체되고, 통합된다는 것이다. “Song of Myself”의 세 번째 가름에서 Whitman이 말했듯이, 사랑의 신의

“세계는 언제나 생식의 충동으로 가득하다.” 알 수 없는 곳에서 대등한 힘의 상극과 상충이 생겨나고, 그들이 자라 절개있는 낱목이 되며, 다 자란 낱목은 “한 배의 생명”을 낳기 위해 상충하거나 상극을 이루는 다른 것들과 합일한다. 상충하거나 상극적인 존재들은 서로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똑같이 정당하며, 똑같이 긍정적이고, 서로를 긍정함으로써 낱목보다 훨씬 큰 하나를 이룬다. 그러므로, Whitman의 시에서 불건강이란 상충과 상극이 부질없이 해소된 증성화의 불모상태이다. 그 곳에서는 생성도, 교류도, 해체도, 재생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Whitman에게 상극과 상충의 무리들 사이의 거침없는 성적 통교는 지고의 선이며, 지고의 가치이다. 그러므로, 상충하는 무리들 사이의 통교를 가로막은 어떤 힘에 종속된 개인이나 문명이나 역사는 건강하지 못하다. 동양의 음양이론가들처럼 Whitman은 상극적 원소들의 끌림과 상승결합에서 새로운 도덕과 미학의 토대를 찾는다. 동양에서는 상극과 상충의 두 힘이 이루는 상승적 관계를 음양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음양이론에 의하면, 양은 강하고 건조한 남성적 힘으로 빛이다. 음은 여리고 축축한 여성적 힘으로 그림자이다. 양은 모여 불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태양이 되며, 음은 모여 물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달이 된다. 두 힘 사이에 끊임없이 교류가 일어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과 같은 생성과 사멸은 그 변화의 리듬이다. 상극을 이루는 두 힘의 상승적 통교가 우주의 본질이며, 음과 양은 성질상 대척적이지만 작용에 있어서는 상호보완적인 것이다. 음양이론에 따르면, 어느 하나도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다른 하나보다 우월할 수 없으며, 양극의 결합이 없이는 어떤 존재도 가치가 없다.

Nietzsche의 비극론은 존재를 상극과 상충을 이루는 우주적 두 힘의 상승적 관계로 설명하는 또 다른 예이다. Nietzsche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디오니수스와 아폴로라는 서로 상충되는 예술충동을 발견한다. 디오니수스적 충동은 합일로의 충동으로서 변화에 종속되어 있는 모든 것—즉, 낱목과 일상과 사회와 현실—을 뛰어 넘으려는 충동이며, 캄캄하고, 가득하고, 보다 유동적인 어떤 시원적 상태로 고통스럽지만 정열적으로 흘러 들어 가려는 충동이다. 반면에 아폴론적인 충동은 낱목을 완성시키려는 충동이다. 아폴론적인 충동이 발현되면, 낱목은 강해지고, 개성을 지니게 되며, 다른 것과 분명히 구별되고, 질서 속의 자유를 추구하게 된다. Nietzsche에 따르면, 인간의 완성이 양성의 상승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듯이, 비극예술의 완성은 이 두 예술충동의 상승적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두 예술충동이 상승적 결합을 이루고 나타나는 문화가 건강한 문화이다.

동양의 음양이론과 Nietzsche의 비극론에서 상충과 상극이 승화하는 방식은 Hegel의 변증법에서 상충과 상극이 해소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John Burt Foster가 Nietzsche의 비극론을 논의하면서 밝혔듯이,³⁰⁾ Hegel의 이론이 상극의 이치를 밝

30) John Burt Foster, Jr., "Nietzsche's Legacy to the Modernists," in *Heirs to Dionysus: A*

혀 하나를 버리는 “변리법” (a dialectic)이라면 Nietzsche의 이론은, 동양의 음양이론과 함께, 상극(相乘)과 상충(相沖)을 상승적 관계로 설명하는 “변승법” (a polarity)이라고 할 수 있다.

In a dialectic the second term, the antithesis, is derived by negating the first term or thesis.... In a polarity—as the underlying image of a magnet might suggest—the two terms, though contradictory, exist each in their own right and are thus both affirmative. Neither presupposes the other. Yeats confronts this issue in *A Vision* when he censures Hegel for thinking that “the two ends of the see-saw are one another’s negation.” Though he turns to Blake for the alternative view that “Contraries are positive ... contraries are equally true,” he might equally have named Nietzsche. During his first encounter with the philosopher he had remarked that “Nietzsche completes Blake and has the same roots.”³¹⁾

변승법에서는 상충하거나 상극을 이루는 우주적 충동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합일을 이루지 않는다. 그들은 서로를 긍정함으로써 불가사의한 결합을 이루며, 결합은 두 힘이 균형을 이루는 어떤 곳에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결과는 각자가 따로 존재할 때보다 훨씬 크고 복잡한 에너지의 단위로 양자가 뭉치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따돌리고 혼자 고고해진다면 양극의 극성은 무용지물이 되어 에너지는 전체지향성을 잃고 혼란스러워지고, 그 결과 우주 전체가 불건강의 늪에 빠지게 된다.

Whitman의 성과 건강의 철학은 상충하거나 상극을 이루는 유기적 양극의 상승적 결합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양의 음양이론이나 Nietzsche의 비극론과 유사하다. Whitman의 시로 미루어 그의 성과 건강의 철학이 전제로 하는 것은 존재를 지배하는 제 1의 충동은 “자아”(the self)를 보존하고 가꾸며 키우는 충동이고, 제 2의 충동은 낚뭇자아의 작고 편협한 공간을 벗어나 보다 큰 자아를 향해 나아가는 충동이다. Whitman은 이러한 충동들을 지닌 유기적 양극 사이에 작용과 반작용을 불러 일으키는 힘을 “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특히 존재를 지배하는 제 2의 성충동에 주목한다. 페러독시컬하게도 우주 속 만물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 형태는 성적 교감과 교합으로 묶은 자아를 살라 없앴으로써 보다 크고 건강한 상태의 자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Blake나 Nietzsche, 혹은 동양의 음양론가들에게서처럼, Whitman에게 우주는 상극과 상충이 있어 비로소 활력을 얻는다. Whitman의 시에서 모든 존재는 성의 외연으로서 대성체이고 그들의 전성(電性) 혹은 자성(磁性)으로만 우주는 존

Nietzschean Current in Literary Modernism (Princeton, 1981), p. 44.

31) Ibid.

재하며, 방전이 아닌 자성의 유기적 작용으로 우주는 건강하게 존재한다. “I sing the Body Electric”에서 인간의 성적 교감행위는 전 우주의 성적 교감행위에 대한 알레고리이다.

This is the female form,
A divine nimbus exhales from it from head to foot,
It attracts with fierce undeniable attraction,
I am drawn by its breath as if I were no more than a helpless vapor,
all falls aside but myself and it, ...

The female contains all qualities ...
The male is not less the soul nor more, he too is in his place, ...
The flush of the known universe is in him, ...
The man's body is sacred and the woman's body is sacred, ...
Each has his or her place in the procession.

(All is a procession,
The universe is a procession with measured and perfect motion.) ...

A man's body at auction, ...
Exquisite senses, life-lit eyes, pluck, volition, ...
A woman's body at auction,
She too is not only herself, she is the teeming mother of mothers, ...
The exquisite realization of health;
O I say these are not the parts and poems of the body only, but of the soul,
O I say now these are the soul!

음양이론에서 “음”의 기운이 모여 물이 되듯이, Whitman의 시에서는 여성적 “기”가 모여 여성적 육체를 만든다. 그리고 그 육화된 여성은 남성적 “기”의 육화된 모습인 “나”와 만나 황홀함 속에서 끝없이 생명을 생산한다. 우주 속의 크고 작은 존재들 사이에는 어떤 형태의 교감과 통교가 늘 일어나게 마련이지만, Whitman의 시 속에서 일어나는 상극과 상충의 통교는 강자가 약자에게 보이는 연민의 정이거나 강자의 약자에 대한 지배가 전제되는 기형적 통교가 아니라, 상극과 상충의 무리들이 무한한 끌림의 충동으로 화합하여 생명의 빛깔과 아름다움과 희열을 얻는 지고의 통교이다.

“Crossing Brooklyn Ferry”는 Whitman이 자신의 성과 건강의 철학을 예술적으로 가장 훌륭하게 표현한 걸작이다. E.H. Miller가 말했듯이, “Crossing Brooklyn Ferry”는 우주 속 만물의 “나”와 ‘너’가 하나되어 ‘우리’가 되는 우주적 사랑의 드라마이다.³²⁾

32) See. E.H. Miller, “Passage to More than India! In his *Walt Whitman's Poetry: A Psycho-*

상극과 상충의 끝림이 없다면 우주에는 태어남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결합이 소멸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죽음과 재생도 없을 것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시원의 “바다”를 가로지르며 물과 물을 연결하는 “연락선”의 이미지로 우주에 내재한 원형적 그리움의 충동과 세계 만물이 생성변화하고 교감하며 영속하는 법칙에 대해 말한다. 연락선을 때리는 강물의 출렁임도 날개짓을 멈춘 갈매기의 비상도 어느 하나 그냥 존재하는 것은 없다. 시인은 초월주의자의 육감적 상상력으로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나”와 “너”의 성적 교접에 대해, 우주의 “순전(純全)하고, 조밀한, 빈틈없는 운행 법칙”(“the simple, compact, well-joined scheme”)에 대해 말한다. 존재의 “빈틈없는” 법칙은 이성신의 “말씀”이 아니라 별거벗은 육신(肉神)의 끝림의 충동이다. 사랑의 묘한 끝림으로 “나”는 “너”—“나”가 아닌 모든 것—를 지각하며, 그것으로 “나”는 “너”에게 다가가 융합을 이룬다. “너”와의 만남으로 인해 “나”는 더 이상 “나”일 수 없고, 패러독시컬하지만, “나”는 해체됨으로써만 낱몸으로 성장한다. 낱몸으로 성장한 “나”는 “너”와 똑같이 우주 속에서 말은 바 소임을 가지며, 크든 작든 그 소임으로 초령은 영원히 변화하고 영원히 지속한다. 시인은 노래한다. “그대는 그대에게 속한 것들을 영원을 향해 바친다, / 그대는 그대에게 속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영혼을 향해 바친다.”

“Crossing Brooklyn Ferry”에서 밤을 향해 치닫는 “떨어지는 해,” 조수에 밀려 부서지는 파도에 출렁이며 문명의 물과 물, 그들을 연결하는 연락선, 나래를 펴고 비상하며 선회하는 갈매기는 시인 Walt를 둘러싸고 있는 한 별의 자연이다. 얼핏 보면 이들은 무상(無常)한 삶에 대한 상징으로 정치적, 심리적, 종교적 모든 면에서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던 19세기 중엽의 미국에 대한 대유이다. 그러나 부서지는 파도에 출렁이며 알 수 없는 끝림으로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연락선은 시인의 성애적(性愛的) 상상력 속에서 우주의 신비와 생명의 시원으로 우리들을 데려다 주는 초월(“crossing”)의 배가 된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생명이 잉태될 때 출렁임과 부딪힘과 부서짐이 있듯이, 우주의 자궁은 언제나 어디에나 출렁임과 부딪힘과 부서짐으로 가득하다. 알씨와의 만남을 향한 알씨의 출렁임이 그렇듯이, “양막”(film)에 싸여 자아를 축성하는 태아의 출렁임이 그렇듯이, “연락선”은 거대한 바다의 양수에 감싸여 쉬임없이 부서지면서 술한 사람들의 물 발자국을 먹고 자연과 인간과 문명을 연결하며 만남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³³⁾ 부서짐의 존재는 무상하지만 패러독시컬하게도 그 무상의 영원한 반복이 곧 삶의 영속이다. 시인은 생각한다. 부서지는 파도에 떠밀려 연락선을 두드리는 “부표”(“floats”)들은 남성의 씨물처럼 삶의 원천이다. 밤이 있어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조수가 밀려와 부서지며 부표가 뱃전을 두드릴 때, 생명의 배는 만남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래를 펴고 하늘로 비상하는 갈매기, 출렁이는 바다, 떨어지는 배—모든 것들이 성애의 법칙에 따라 하나의 세계로 융합되고 부서져서

logical Journey (New York: New York Univ. Press, 1969), p. 206.

33) See. Miller, p. 207.

는 다시 융합되는 것이다.

시인은 상상의 바다 위에서 출렁이는 파도를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는 상상의 배를 타고 초월의 피안으로 실려간다. 시인의 육체적 눈과 귀에 잡히는 모든 “말없는 아름다운” 것들은 영혼의 양식이 되어 초시간의 미래를 꿰뚫어 보게 한다. 시인은 마침내 일상의 현상 너머에서 이체(理體)적 진리(the noumenal truth)를 발견한다. 우주의 본체(本體)적 계획으로서 “순전(純全)하고, 조밀한, 빈틈없는 계획”(the simple, compact, well-joined scheme)을 발견한다. 만물의 존재 속에서 자신을 키워가는 충동과 자신을 해체하는 충동은 하나인 것이다. 시인은 바로 자신이 “영겁의 세월을 두고 출렁이는 부표에 부딪혀 어머니의 배 속에서 자라났음”을,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육체를 통해 자신의 날뭉을 얻었음”을 기억해 낸다. 그리고 어떤 무엇도 그리움과 만남과 생성과 해체의 “조밀한” 법칙을 거역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What is it then between us?

What is the count of the scores or hundreds of years between us?

Whatever it is, it avails not—distance avails not, and place avails not, ...

I too felt the curious abrupt questionings stir within me,

In the day among crowds of people sometimes they came upon me, ...

I too had been struck from the float forever held in solution,

I too had receiv'd identity by my body,

That I was I knew was of my body, and what I should be I knew

I should be of my body.

시인은 스스로에게 수사적으로 묻는다. “빈틈없는 [신의] ‘계획’에서 “나”와 “너” “사이”의 만남을 가로 막을 수 있는 무엇이 있는가? 우주 차원의 “계획”에서 만물은 시간과 공간에서, 이념적으로, 의식상으로, 모두 서로 멀리 혹은 가깝게 떨어져 있다. 그러나, “나”와 “너” 사이에 무엇이 있던, “우리” 사이에는 시간도 공간도 어찌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악심도 가로 막을 수 없는, “너”를 “알고 싶은 충동,”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끌림”의 충동이 있다. 그리고 그 끌림으로 “나”와 “너”는 “우리”가 되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영겁의 세월 조금도 변함없이 존재를 관류하는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우주적 차원의] 교감의 욕구”가 있어, 무서운 악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시인은 노래한다. “악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것은 너에게만이 아니니, / 내게도 악의 어두운 그림자는 드리웠느니, ... / 그러나 나 그대에게 다가가노니, ... /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아는 사람 있으라?” 마침내 시인은 사랑의 신의 영광을 찬미하고, 그의 영광이 영속하기를 기원한다.

Which fuses me into you now, and pours my meaning into you? ...
 Flow on, river! flow with the flood-tide, and ebb with the ebb-tide! ...
 Live, old life! Play the part that looks back on the actor or actress!

그리고 성신(性神)의 위대한 계획을 세상에 전하는 목회자로서 “그저 잠자코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운 목자들”에게 신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함을 가르친다.

You necessary film, continue to envelop the soul,
 About my body for me, and your body for you, be hung our divinest aromas ...
 You have waited, you always wait, you dumb, beautiful ministers, ...

시인 Walt에게 자연은 예배당이고 육감으로 흘러 드는 사물과의 교감은 “영혼의 양식”(sustenance)이다. Whitman의 성(性)과 건강의 교회에는, Miller가 말한 대로, 우리들이 친숙한 어떤 교회에서처럼 미리 정해진 죽은 의식은 없다.³⁴⁾ 거기에 단 한 가지 절대적 의식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일상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잊고 사는 “그저 잠자코 살아가는 세상의 아름다운 목자들”에게 우리들의 감각을 열어 두는 것이다. 저마다의 도도함으로 극성을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극성을 되찾아 생명의 향연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낮의 세계 속에서 진보의 신화에 취해 얻은 마음의 병과 상처를 보정하는 것—이것이 시인 Walt가 역사 속에서 고통받는 자연인 Walter를 찬미하고 노래부르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시인 Walt는 스스로 모순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소리 높여 찬미하는 것이다.

Do I contradict myself?
 Very well then I contradict myself,
 (I am large, I contain multitudes.)

(“Song of Myself,” 51)

V. 결 론

Fernando Alegria는 Whitman의 시를 “젊고 생식력있는 남성의 아름다움” (“youthful, virile beauty”)에 대한 찬미라고 정의한다.³⁵⁾ 그러나 Whitman의 노래는 “젊고 생식

34) Ibid., p. 200.

35) Fernando Alegria, “Borges’s ‘Song of Myself,’”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Walt Whitman*, ed. Ezra Greenspan (New York: The Cambridge Univ., 1995), pp. 216-7.

력있는 남성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일 뿐 아니라 힘있는 여성의 가이없는 생식력에 대한 찬미이며, 그들의 결합으로 생겨나는 보다 큰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이다.

Loafe with me on the grass, loose the stop from your throat,
Not words, not music or rhyme I want, not custom or lecture, nor even the best,
Only the lull I like, the hum of your valved voice.

I mind how once we lay such a transparent summer morning,
How you settled your head athwart my hips and gently turn'd over upon me,
And parted the shirt from my bosom-bone, and plunged your
tongue to my bare-stript heart,
And reach'd till you felt my beard, and reach'd till you held my feet.

(“Song of Myself,” 5)

Whitman의 노래는 생명의 근원인 밤의 세계, 어머니의 세계에서 문명으로 잃어버린 원시의 생명력을 회복한 인간이 갖는 성신(性神)과의 거룩한 교접의 찬미이다. 시인은 어느 여름 아침 풀밭에 누워 북받쳐 오르는 사랑의 감정으로 다가오는 연인으로부터 가슴 뚫듯한 사랑의 기쁨을 맛본다. 연인의 숨결이 문명의 오라기들을 걷어 치우고 가슴에 차오를 때 큰 세상이 열리고 삶은 한없이 그득해 지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시인은 목을 짝 채운 “문명”의 찌꺼기(“stop”)를 뱉고 공기의 자연스런 흐름이 있는 목소리를 되찾으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과의 거침없는 만남을 가지라고 충고한다.

병들어 아플 때에 건강을 바라고 그 바램으로 다시 건강해 질 수 있는 것은 존재의 패러독스일까? Whitman은 진보주의 역사의 신화에 취해 죽어가는 미국적 영혼을 위해 위대한 땅과 자라나는 도시와 밭 가는 말과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노래했고, 부서지는 파도와 검은 숲과 먼지 뽀얀 시골 길을 노래했다. 그는 광대한 땅에서 생명을 꽃피우는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노래했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의 우정을 노래했다. Emerson이 “우리들의 눈에는 미국은 그대로 한 편의 시이다”라고 가르쳤을 때, “미국은 여전히 ‘신의 그림’(a divine sketch)으로 남아 있습니다”라고 Whitman은 답장을 써 보냈었다.³⁶⁾ Emerson의 가리킴을 좇아 Whitman은 원시의 광대무변한 미국의 땅덩어리를 보았고 그 땅의 원시의 숨결을, 약동하는 대륙의 생명을 노래로 담은 것이다. Whitman의 시는 Nietzsche에 앞서 미국의 한 국민시인이 부른 위대한 미국을 향한 디오니수스의 찬가이다.

Anderson은 그의 논문 “Walt Whitman”의 결론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36) Gay Wilson Allen, *A Reader's guide to Walt Whitman* (New York: Octagon Books, 1986), p. 57.

“Whitman은 미국의 뼈와 살 속에 살아 있다. 그는 미국의 진정한 국민시인이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Whitman에게로 되돌아 가는 것, 즉 Whitman의 꿈과 노래와 그의 땅이자 우리의 땅이기도 한 이 땅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³⁷⁾ 만약에 Whitman의 노래가 단순히 천진함으로 역성장한 아담이 맞는 숙명적 비극의 노래였다면, “한 사람의 미국인 Walt Whitman” (Walt Whitman, an American)은 결코 오랜 세월 동안 미국인들의 꿈과 희망을 읊조리는 “한 사람의 미국인 음유시인”(an American bard, at last)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의 시는 차라리 진보의 신화에 취해 주저 앉은 미국정신을 되살려 내는 주술(呪術)이다. “For You O Democracy”에서 Whitman은 미국에 대한 자신의 꿈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Come, I will make the continent indissoluble,
I will make the most splendid race the sun ever shone upon,
I will make divine magnetic lands,
With the love of comrades,
With the life-long love of comrades.

“Whitman의 꿈”은 미국 대륙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오랜 사랑”으로 “미국을 영구한 대륙”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Whitman은 그의 시에서 둘이 한 몸 되어 생명을 낳고 여럿이 나란히 서서 조화를 이루는, 그리하여 시간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Nietzsche가 때묻지 않은 귀족계급의 주인정신에서 무엇이 선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들의 힘에서 윤리와 미학의 새로운 기초를 찾았다면, Whitman은 우주에 스린 성감을 회생시키는 시인의 초혼(招魂)력에서 문명과 도덕의 새로운 틀을 찾았다.

37) Anderson, p. 383.